

〈일반논문〉

미시시피 계곡의 면화생산과 자연과 인간*

양 홍 석 **

〈목차〉

- I. 물류에서 환경생태학까지
- II. 면화상품 생산과 생태학의 역사
 - 1.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
 - 2. 미시시피 면화와 인공자연의 탄생
 - 3. 급진적인 변화의 완성
- III.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 전통적인 인간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자연/자원 중심의 역사서술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려는 시론이다. 그 한 사례로서 “면화”라는 식물을 선택하였다. 면화는 미국역사 뿐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기존 역사 연구의 중요한 소재 중 하나였다. 저자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 속 관계가 갖는 의미에 천착하였다. 그런 가운데 물질인문학과 환경사 이론을 적용해서 이를 역사학에 접목하고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시시피강을 중심으로 한 면화 생산의 역사를 살펴본다. 전통적인 역사 서술은 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1054082).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지역을 7년 전쟁, 이후 아이티 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고심 그리고 잘못된 오판에 서부터, 루이지애나 영토라는 이름과 제퍼슨 및 잭슨 중심의 역사로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 특히 영웅 중심의 서술 대신, 필자는 면화의 종류와 이것이 어떻게 미시시피강 주위로 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인간, 특히 흑인 노예들의 생활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본다. 즉, 역사의 주제가 인간이 아니라 미시시피강이고 면화이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외교가 아니라 면화의 종류를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인간은 오히려 부속적인 요인이다. 이것은 곧 현재의 자연과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이 단지 이론적인 담론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역사학에서는 응용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에서 미시시피강 중심의 사례로 확인해보는 것이다.

□ 주제어

미시시피강, 면화, 인공자연, 급진적 변화, 노예제도

I. 물류에서 환경생태학까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자연”(nature)과 “물질”(things)에 대한 이해는 역사가와 역사학의 주된 관심이 아니었다. 역사는 오로지 인간과 사회 좀 더 정치하게 이야기하면 행위주체인 인간(agency)과 관계한 거대한 자장으로, 이른바 구조(structure)와의 상호관계선상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자연과 그 자연의 구성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기껏해야 인간의 활동에서 수반되는 부차적인 부분으로 이해되고 분석되어 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근래 들어 이 주제는 이 분야에서 기왕의 연구의 대항개념

으로 또는 역사학의 중요한 하위항목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이 역사라는 무대에서 등장하고 이어서 그 속을 장식하는 여러 사물의 역사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자 역사라는 학문과 역사가가 보아야 할 주제와 환경이 새 지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추세가 최근 갈수록 확대되자 이제 기존의 사물의 질서를 다른 방향으로 탐색하게 된다. 그 결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양한 지평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물의 질서를 인간 중심의 역사학에서 벗어나서 보거나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볼 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시선의 확장이라고만 할 수 없다. 이제 인간은 구성하는 모든 자연이 보다 더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깊게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중심적 분간에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상호 연관성에서 보아야 할 ‘거시적, 지구사적인 조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태학적인 역사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웅변적 주장들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유일무이한 지구의 의의를 규명하고 철학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겸손과 절제의 미학을 이 분야의 연구 성과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긍정적인 역사학의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

이와 같은 짧은 전제를 인정하고서 이 글에서 살펴 볼 미시시피 강의 자연과 물질/물생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고찰은 한편으로는 시론 성격의 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주장하는 맹렬한 주장과 이론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지구사적 관점에서 인류의 물질과 생명의 역사에 대한 과도한

1) Sarah Maza, *Thinking About Histor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특히 제3장 “The History of What?”, pp.83-117; 양홍석, 「미국 석유와 미국 역사가의 기억전쟁(I)」, 『동국사학』 70집 (서울: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1), 147-184쪽; 「미국 석유와 미국 역사가의 기억전쟁(II)」, 『동국사학』 72집 (서울: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1), 407-441쪽; 「자연과 환경 그리고 미국 역사가들」, 『미국사연구』 55집 (서울: 한국미국사학회, 2022), 1-43쪽.

탐닉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도모한다.²⁾

다른 한편으로 미시시피 강 지역의 면화 상품 생산 과정은 이 지역의 많은 변동을 글로벌적 시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 강 수계를 중심으로 면화집중재배로 나아가게 됨에 따라서 결국 더 크게는 이 당시 세계경제와 이 지역의 유관관계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면화라는 식물 생산으로 이 지역이 변환됨에 따라, 미시시피 강 수역은 아프리카를 거쳐 이 땅에 오게 되고, 곧바로 이른바 “국내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인간 상품”의 지구사적 이동을 야기하게 된다. 그들 흑색 인류는 이제 그 긴 강제된 이주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신과 문화가 철저히 소외됨을 감

2) David Silkenat, *Scars on the Land: An Environmental History of Slavery in American Sou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Walter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Slavery and Empire in the Cotton Kingdom*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Ulrich Bonnell Phillips, *Life and Labor in the Old South* (Boston: Little Brown, 1929), p.3; Avery Craven, *Soil Exhaustion as a Factor in the Agricultural History of Virginia and Maryland, 1606–1860*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26); Cecil Lewis Gray, *A History of Agriculture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to 1860* (Washington, DC: Carnegie, 1933); Paul W. Gates, *The Farmer's Age: Agriculture, 1815–1860*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0), p.4; Mart A. Stewart, “If John Muir Had Been an Agrarian: American Environmental History West and South,” *Environmental History* 11 (2005), pp.139–162; Albert E. Cowdrey, *This Land, This South: An Environmental History*, rev. ed.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96); Drew A. Swanson, *Remaking Wormsloe Plantation: An Environmental History of a Lowcountry Landscape*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12); Lynn A. Nelson, *Pharsalia: An Environmental Biography of a Southern Plantation, 1780–1880*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12); Mikko Saikku, *This Delta, This Land: An Environmental History of the Yazoo–Mississippi Floodplain*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05); Mart A. Stewart, “What Nature Suffers to Groe”: *Life, Labor, and Landscape on the Georgia Coast, 1680–1920*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1996); Christopher Morris, “A More Southern Environmental History,” *Journal of Southern History* 75 (2009), pp.581–598.

수하게 된다. 그들은 세상이 글로벌 경제로 재편되기 이전에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문화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곳 미시시피 강의 양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면화 생산을 통하여 이 지역이 이른바 인공자연으로 개조됨에 따라서 그들의 몸에만 오직 관심이 있는 주인에 의해 철저하게 타자화 되어간다. 그리고 그들의 몸이 이제 상품이자 물류로서 현금화 되어버린 역사가 완성되게 된다. 면화와 함께 그 몸이 상품이 되어버린 그 비극의 역사의 점철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³⁾

노예 노동력과 함께 이 사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인 지표 중에 하나는 바로 토지이다. 그럼으로 당대 그곳의 주인은 언제나 여기에 투여되는 노예의 자질 만큼이나 그곳의 토지에도 신경을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인 방식으로 토지 비옥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보충을 다른 방식으로 찾고 있었다. 바로 노예들의 노동으로 그 부분을 채우거나 아니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심사숙고하게 그 토지의 질적인 능력을 평가하여 그 토지에 과하게 “손”을 투하하여 실패와 생산량을 예측하지 못하는 낭패를 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여야했다. 토지 경영과 수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시대의 일상적인 노동의 기준은 바

3) Louis Hughes, *Thirty Years a Slave: From Bondage to Freedom* (Milwaukee: Southside Printing, 1897), p.40; Frederick Law Olmsted, *The Cotton Kingdom*, ed. Arthur M. Schlesinger (New York: Random House, 1984; orig. pub. 1860), pp. 9, 186, 431; James Henry Hammond, “Report of the Committee of the Barnwell Agricultural Society, on the Culture of Cotton,” in Turner, *The Cotton Planter’s Manual: Being a Compilation of Facts from the Best Authorities on the Culture of Cotton* (New York: C. M. Saxton, 1858), p.26; John Hebron Moore, *The Emergence of the Cotton Kingdom in the Old Southwest: Mississippi, 1770–1860*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8), p.127; Steven F. Miller, “Plantation Labor Organization and Slave Life on the Cotton Frontier: The Alabama Mississippi Black Belt, 1815–1840,” in *Cultivation and Culture*, ed. Ira Berlin and Philip D. Morgan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3), p.158.

로 “손”이라는 단위이다. 인공자연과 면화라는 물질/물류 생산 하에서 이것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검은 피부의 인간 생명체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체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대서양을 거쳐 미국의 동부라는 주인의 경제에서 요구되는 몸의 움직임에서 이제 다시 먼 거리를 거쳐 이 지역으로 팔려오게 됨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농업에 자신의 신체를 조정하고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제 “손”이라는 단위가 증명하는 것이다. 면화 상품 생산에서는 결정적으로 빠른 “손” 동작으로 목화를 따는 것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서 그들의 신체 중에서 강조되고 선호되는 특정 부위가 몸의 변용을 만들어내게 된다. 바로 주인이 그리고 새로운 자연이 인간 상품에 대한 신체 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⁴⁾

노예 노동과 토지의 비옥도가 이 지역 주인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토지 경영에서 연간 예정된 일정에 대한 계산과 이후 생산과정의 예측 시스템에서 왜 “손”이라는 단위가 그렇게 많이 사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깊은 역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의 크기를 산출하는 표준단위인 에이크와 생산량을 정하는 단위인 포대에서, 왜 그들 주인들이 인간의 “손”을 단위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했는지를 말이다.⁵⁾

미시시피 강의 면화의 길고도 슬픈 이야기들을 하다보면 이와 같은 자연의 약탈, 환경, 여기에 보다 큰 개념인 생태학의 역사를 마주하게 된다. 이 세계에서 농장경영 또는 일반적으로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리어지는 농업 경작의 방식은 단지 노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그런 단순한 과정

4) *Ibid.*: Edward E. Baptist, *The Half Has Never Been Told: Slavery and the Making of American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2014), pp.39-144;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pp. 152-178.

5) *Ibid.*

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자연과 환경을 조직적으로 약탈 및 조정하고, 인위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인간의 놀라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면화를 따는 작업은 단지 하나의 노동이나 작업으로만 볼 수 없다. 또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로 노예와 주인과의 경제적 생산 관계의 차원에서 볼 수도 없다.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노동이라는 표현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어찌면 거대한 서사의 한 부분으로 역사(役事)라는 말로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싶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곳의 노예제도의 역사를 수궁하고 주인들의 착취적인 노동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과장된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그 노예노동의 역사가 지닌 위험성과 잔인함이 충분히 증명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특정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자본주의(the effects of staple-crop-producing agro-capitalism)가 만들어놓은 역사와 그 결과는 단지 농장주와 노동의 주체인 노예들의 관계만으로는 제대로 된 역사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도 없다. 또한 결정적으로 그 제도가 끼친 영향력을 이해하는데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존하여, 시선을 깊고 깊은 예각으로 집중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차원의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 나갈 수 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의 신체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조정될 수 있던 것인지에 대한 역사 그리고 그 당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이들 인간들을 둘러싼 생활조건이 어떻게 바뀌어 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큰 변화와 역사(役事)가 모두 특정 조건의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농업적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위대하고도 무시무시한 역사이자 지금까지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우리 역사가의 창조적 호기심

을 자극하는 것이다.

환경사와 물질인문학의 이론을 적용해서 역사학이 밝힐 수 있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사례로서 시론 성격의 이 글에서는 19세기 미국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급진적 변화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론에 머물고 있는 차원에서 실제 어떻게 역사의 시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곳에서 면화를 통해 노예를 통한 생산에 매진함에 따라서 크게는 세계 경제가 전환되고 작게는 미국 남부의 특이성과 함께 인공자연의 인위적/자연적 메타피직이 만들어놓은 그 놀라운 경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면화를 중심에 놓고 그것을 물류로 하여 일어나는 종합적 거대한 변화상을 추적할 수 있는 빅 히스토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⁶⁾

II. 면화상품 생산과 생태학의 역사

1.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

인간이 한 식물에 대해서 그렇게 몰두하고 그 경작을 통하여 다른 피부색을 지닌 인간에게 족쇄를 강요하게 된 계기가 된 것 중에서 “면화”만큼 슬픈 역사를 간직한 것은 드물 것이다. 특히나 이 식물은 미시시피 계곡의 자연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

6) Maza, *Thinking About History*, pp.83-117; 양홍석, 「미국 석유와 미국 역사가의 기억전쟁(I)」, 147-184쪽; 「미국 석유와 미국 역사가의 기억전쟁(II)」, 407-441쪽; 「자연과 환경 그리고 미국 역사가들」, 1-43쪽.

다. 완전한 원시상태의 이 자연에서 어느 순간 이 하얀 솜으로 온 대지가 덮여버리게 되었다. 바로 인공자연의 모습이 그렇게 빠른 순간에 그렇게 놀랍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너무나 희귀한 경우가 아닐 수 없었다. 이른바 세계경제가 만들어 놓은 최선이자 최악의 자연의 재창조라고 할 수 있었다.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농업의 역사에서 보아도 이렇게 한 순간에 이런 정도의 변화를 가져온 경우는 드물었다. 하나의 식물이 자연과 지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인문지리학의 결정 요인이 된 경우 말이다. 그런데 이 지역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문제의 이 식물의 경우는 좀 남다른 면이 있다. 과거의 농업혁명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미시시피 강 연안의 식물재배는 많은 부분 자연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새로운 식물과 그 재배의 역사이다. 이 시대 지상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식물이었다.⁷⁾

이 시대 지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식물이라니! 무슨 그런 말이 있는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지역의 독창적 식물이 어떻게 만들어져 인공자연의 역사가 만들어 질 수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

7) John Hebron Moore, *Agriculture in Ante-Bellum Mississippi* (New York: Octagon Books, 1971; orig. pub. 1958), pp.33-35; John Hebron Moore, *The Emergence of the Cotton Kingdom in the Old Southwest: Mississippi, 1770-1860*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8), pp.12-13; J. A. Turner, *The Cotton Planter's Manual: Being a Compilation of Facts from the Best Authorities on the Culture of Cotton* (New York: C. M. Saxton, 1857), p.95; C. Wayne Smith and J. Tom Cothren, eds., *Cotton: Origin, History, Technology, and Production* (New York: J. Wiley, 1999); Joseph Bardwell, *Cotton Culture* (New York: Orange Judd, 1868); H. B. Brown, *Cotton: History, Species, Morphology, Breeding, Culture, Diseases, Marketing, and Uses* (New York: McGraw-Hill, 1927); Charles William Burkett and Clarence Hamilton Poe, *Cotton: Its Culture, Marketing, Manufacture, and the Problems of the Cotton World* (New York: Doubleday, 1906); L. C. Gray, *History of Agriculture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to 1860* (Washington, DC: Carnegie Institute, 1933).

다. 이 식물은 1820년경 미시시피 주의 로드니(Rodney)에서 인간의 독창적인 노력에서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물생”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고시피움 바라바덴세(*Gossypium barbadense*)이라는 이름의 식물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해도면(海島綿: sea island cotton)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식물이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기왕에 있는 품종을 개량하게 된 것임으로 잡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원과 탄생을 찾아보면 지구사적인 차원에서 이 생물이 가진 그 관계망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⁸⁾

19세기 말부터 미시시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식물이 지상에서 처음 선보여지기는 했지만, 그 기원은 좀 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선 동양의 시암지역 즉 태국지역의 품종이 우선 조지아 주를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고 곧바로 새롭게 확장되어가는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한편 19세기 내내 미국에서는 오랜 재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 산 면화가 또한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여러 곳에서 재배된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 발전하는 새로운 과학의 힘으로 완전히 다른 지형에서 자라고 있던 이들 식물들이 자신의 고향과 자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자연을 조성할 수 있는 식물로 재창조 된 것이다. 인간이 노력으로 만든 이 식물은 솜털이 대단히 길고 섬세하여 가는 실로 방적할 수 있어 지금까지 인류가 경작하는 모든 면화 종류에서 뛰어난 탁월성을 갖춘 최상의 식물이다.⁹⁾

이 새로운 식물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자연의 지배 종으로 나타나기 위한 역사를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글에 강조하고자 하는 본말을 다소 무시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을 새 시대 자연주의적 생태학적

8) *Ibid.*

9) *Ibid.*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른 방식으로 서술할 수도 있다. 우선 첫째는 바람과 곤충의 영향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영향으로 타가수분 또는 교차수분이 발생하여 다양한 면화 품종으로 덮여있는 대지에서 이들도 자신의 생태학적 자리를 우뚝 서게 된다. 두 번째는 인간들의 영향이다. 그들 중에서도 호기심이 많은 그리고 새로운 생물학에 관심이 많은 주인들과 농장주를 중심으로 대지의 면화 식물 중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뛰어나고 질적으로 우세한 품종을 선택하여 씨를 추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농장에서 자라는 다양한 면화 종류에서 특정 종류가 우선시 되어 퍼져가도록 하였다. 이제 대지는 거의 한 종류의 선택된 면화로 채워지게 된다.¹⁰⁾

원래는 아주 독특한 몇몇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에 “멕시코 칸 코튼”(Mexican cotton)이라고 불리어졌든 또는 일반적으로 육지면(陸地綿)으로 알려졌든 이 식물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이름으로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들어내게 된 것이다. 이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새로운 잡종 식물은 이른바 “페티 걸프 목화”(Petit Gulf cotton)라고 불리어지는 특허를 받게 된다. 물론 그 이름은 미시시피 강의 굴곡 지역에서 이 제품이 주로 생산되고 재배되었기에 이름에 그 흔적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다시 잡종 식물은 운이 좋은 미시시피 주의 로드니(Rodney)로 전해졌고 이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생산된 제품들은 뉴올리언스의 상인들을 통해서 팔려나가게 된다.¹¹⁾

그리고 또 30년 동안 농장주와 목화씨를 판매하고 있는 상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페티 걸프 목화라고 불리어졌던 이 신품종에서 다시 여러 품종이 개량되어서 소개되고 있

10) *Ibid.*

11) *Ibid.*

었다. 빅크스종(Vick's Seed), 타버종(Tarver's Seed), 호건종(Hogan's Seed), 브라운종(Brown's Seed)이 바로 그런 종류의 한 보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슈가 로프(Sugar Loaf), 머니 부시(Money Bush), 마스토턴(Mastodon), 피티 프로릭(Pitt's Prolific), 멀티볼루스(Multibolus), 맘모스(Mammoth), 록 스미스의 25세트(Rob Smith's 25-Cents), 바나나(Banana), 체스터(Chester), 프라우트(Prout), 포메그랜네이트(Pomegranate) 등의 그 이름에서도 생산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경쟁력 있는 품종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품종상인들의 자신의 상품의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멋진 이름의 종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¹²⁾

인간의 노력이 이렇다 할지라도 자연의 역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이와 같은 개성과 탁월한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연은 이들 상품들의 특징들을 무디게 만드는 작업을 쉽게 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발명한 식물이라는 그 종의 특이성은 주위의 다른 종과 혼합이 되어서 그 성격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자연 그 중에서도 바람이 씨앗을 흩트리는 이 위대한 작업을 능가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품종의 씨와 다른 질적으로 떨어지는 종들이 위대한 바람의 은총으로 해서 다시 평등화되는 것이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용서치 못할 일이다. 이러한 자연의 공평무사함을 극복하고 생산량을 확대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바로 농장주들이다. 그들은 자연의 이런 공평무사함에 대항해서 다시 별판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적어도 거의 3-4년 동안 인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바로

12)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이름의 종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Dean, Silk (also known as McBride), 100 Seed, Sugar-Loaf, Cluster, Banana, Boyd's Prolific, Jethro, Lintopia, Diamond, Original Stock, 8 Locks of the Small Diamond, Belle Creole, Sub Ingri, Santa Maria 등이다. M. W. Phillips, "The Different Varieties of Cotton Seed," *American Cotton Planter* 3:6 (June 1855), pp.184-185.

식물우생학운동이다. 적어도 좋은 질의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신품종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또는 농장의 면화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초기 자본을 투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품종으로 자연을 다시 조정하려고 나서게 된다.¹³⁾

면화의 경우 우수한 품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산량”이다. 다른 요소로 그 식물이 생산하는 “솜의 질” 또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회수량이다. 질 좋은 면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자란 그리고 만개한 면화를 자연에서 효과적으로 회수라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연이 준 선물 중 “채집 또는 따는 일을 쉽게 해줄 수 있는 품종”이 가장 선호된다. 그런데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른바 “페티 걸프 목화”라고 불리어지는 이 개량 품종은 모든 면에서 지구상의 어떤 다른 종의 면화보다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생태학과 경제학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다.¹⁴⁾

우선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놓은 이 선택된 품종은 특별한 토양이나 기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전천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에 적응도가 높았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기왕의 다른 품종과는 달리 거의 2주 이상 빨리 봉우리가 터져 나오므로 결과적으로 목화를 수확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 경작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서리와 같은 피해”를 일찍부터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면이 벌판에서 썩어 내리

13) I. M. W. Phillips, “The Different Varieties of Cotton Seed,” *American Cotton Planter* 3:6 (June 1855), pp.184-185.

14) J. A. Turner, *The Cotton Planter's Manual: Being a Compilation of Facts from the Best Authorities on the Culture of Cotton* (New York: C. M. Saxton, 1857), pp.103, 105, 117.

는 일이 드물어 졌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확기가 길어진 그 시간 만큼이나 좋은 품질의 제품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곧 시장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해도면은 고급 면직물에 사용되는 길이 34 밀리미터 이상의 ELS 섬유를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일 조량이 많고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리기만 하면 된다. 미시시피 계곡은 완전하지는 않아도, 이와 상당히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폐놀성 유독성분 고시폴을 함유하고 있어 병충해에 내성이 또한 강한 편이다.¹⁵⁾

그러나 저러나 이 품종이 가장 뛰어난 이유는 앞에서의 여러 이유 중에서도 이 시대 농장주들이 하는 말로 “따기 쉽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런 혁신적인 품종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루에 성인 노동자들이 목화를 50 파운드 정도를 딴 것이 “상당한 양으로 칭찬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페티 걸프 목화” 시대가 오면 그런 성과는 가소로운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이유인즉 성인 노동자들은 거의 200파운드 이상의 작업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⁶⁾

페티 걸프 목화의 이 놀라운 장점은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유사 잡종의 연구 개발로 이어졌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손쉬운 수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신종 목화는 완전히 피어났을 때 보면 솜의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면화의 씨가 든 꼬투리가 완전히 활짝 열려서 이 또한 수확을 용이하게 하며 동시에 마른 거칠거칠한 껍질은 날카로운 각과 모서리를 이루지만 완전히 열여 제키는 순간, 작업자가 그 안에 있는 솜 덩어리를 손쉽게 빼낼 수 있다. 이 분야의 위대한 역사책을 남긴 윌터 존슨 이야기를 빌리면 “이 품종을 보면 자연이 스스로 진화를 한 것이라는 보다는 인간의

15) Moore, *The Emergence of the Cotton Kingdom*, pp.12-13.

16) *Ibid.*, p.12, 85.

손의 작업동작에 맞추기 위해서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한 말이 적절하다. 인간의 놀라운 생태학적인 개조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2. 미시시피 면화와 인공자연의 탄생

윌터 존슨의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도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이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능력과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인간에 스스로 적응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이제 인간의 손도 이 면화왕국시대의 노동의 요구에 맞게 변화 적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경구는 이 시대 이 지역의 환경과 생태학적인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좋은 보기이다. 이 시대의 역사를 매우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또 다른 역사가 에드워드 E. 밌티스트는 아직도 “반의 이야기에는 제대로 이야기 해지지 않았다”는 저 웅변적인 제목의 글에서도 이 놀라운 변화과정을 슬프게도 읊어내고 있다. 이제 이 작물 앞에 우리의 신체도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슬프고도 답답한 이야기를 더하고 있는 애절한 노동의 고통을 이 보다 더 답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가의 산문에서 슬픔은 더 극대화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문제는 잠시 미루고 우선 새로운 면화의 생산에 이곳의 원시적 자연이 어떻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한다.¹⁸⁾

이 지역의 인공자연이 이렇게 단일 품목의 상품재배로 일어나게 되고

17)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pp.152-153; Turner, *The Cotton Planter's Manual*, pp.105, 108, 124.

18)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pp.152-153; Edward E. Baptist, *The Half Has Never Been Told: Slavery and the Making of American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2014).

그런 작물재배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 생태학 인간의 노동을 직접 담당하는 신체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지역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개발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길고도 긴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인간중심의 역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 것이다. 모든 역사책이 7년 전쟁과 아이티 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고심과 잘못된 오판에서부터 루이지애나 영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제퍼슨과 잭슨 중심의 인간중심의 서술에서까지 이 지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지역은 국적논쟁이 있었고 이어서 정착과 국민주의 운동, 투기와 결합된 개발 이어서 인공자연을 만들어 가게 됨에 따라서 면화재배를 위한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이 확보되어 갔다. 그 중에서도 이 새 품종을 위한 자연 개조 운동은 노예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작물은 이 지역의 인공자연을 위해서 놀라운 수의 노예들의 손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도 이들의 노동으로 이 자연은 스스로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자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여기에 생산성이 높고 자연에 적응하기에도 최적인 이 생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식물을 자연에서 가져오는 작업, 즉 손작업이 관건이 되자 대규모 노예의 확보가 사활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해상 노예 무역의 금지 운동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자 이 여파로 국내 노예무역이 활발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 개척사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역사이다. 또는 미국의 국토확장 또는 아메리칸 시스템의 일환인 위대한 개척의 역사로서 다루어져 왔던 역사였다.¹⁹⁾

19) Adam Rothman, *Slavery Country: American Expansion and the Origins of the Deep South*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Malcom J. Rohrbough, *Trans-Appalachian Frontier: People, Societ-*

그러나 자연과 환경의 생태학을 적용하여 보면 이곳의 자연은 파괴와 재창조 그리고 파괴의 상황으로 결국 인간의 위험스러운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의 자연 개조작업 속에서 세계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인간상품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영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물론 주인들과 비자발적 인간 상품의 노동력이 만들어낸 비극의 흐름이 이 나라의 과거와 나아가 오늘날까지 요동치게 되었다. 이 광기적인 자연 개조 운동의 역사를 비극의 탄생 이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시시피 수계를 통틀어서 넓게 형성된 면화 왕국(Cotton Kingdom)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었다. 앞서 확인 했던 것과 같이 이 지역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정착하기에는 연방정부 이전부터 그림으로 미국의 영토로서 자리를 잡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긴 시간의 탐험과 관찰 그리고 측량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하게 하고 다시 여러 제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여기 새로운 토지를 만드는 사업에서도 쉽지 않은 일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²⁰⁾

ies and Institutions, 1775-1850, 3rd edit,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Songho Ha, *The Rise and Fall of the American System, 1790-1837*, (London: Pickering & Chatto, 2009), 양홍석 역, 『아메리카 시스템의 흥망사, 1790-1837』, (서울: 학고방, 2009), 197-307쪽.

- 20) John Parker, *His Promised Land: The Autobiography of John P. Parker, Former Slave and Conductor on the Underground Railroad*, ed. Stuart Seely Sprague (New York: W. W. Norton, 1996), p.30; Northup, *Twelve Years a Slave* ed. Sue Eakin and Joseph Logsdon (Baton Rouge: Louisiana University Press, 1968), p.116; Steven F. Miller, "Plantation Labor Organization and Slave Life on the Cotton Frontier: The Alabama Mississippi Black Belt, 1815-1840," in *Cultivation and Culture*, ed. Ira Berlin and Philip D. Morgan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3), p.158; Charles Ball, *Fifty Years in Chains: or, The Life of an American Slave* (Detroit: Negro University Press, 1969; orig. pub, 1895), p.75; Louis Hughes, *Thirty Years a Slave: From Bondage to Freedom* (Milwaukee:

이 지역의 수풀들로 가득한 거대한 땅덩어리들을 제대로 된 농경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 모든 자연의 소산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처너지의 밀림을 농경지이자 경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벌목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 “이 일의 결코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강행되어왔다.”라는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는 기록은 바로 이러한 일이 그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리고 가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증언을 남긴 인물은 다름 아닌 버지니아에서 이곳으로 팔려온 존 파크라는 노예이다. 그럼으로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곳의 노예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²¹⁾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회고한다. “그 거대하고 풍요로운 숲과 나무들은 이제 글자그대로 뿌리 채 뽑혀 나뒹굴었다.”라고 회고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일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손에 도끼를 든 노예들에 몹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선 숲의 참나무와 사이프러스와 같은 계통의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활엽수와 상록수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일종의 관목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숲의 지면과 바닥을 대강의 토지로 만들기 위한 초벌작업이다. 이런 고되고 싶지 않은 일이 끝나면 그 나무들을 다시 숲 밖으로 이동하는 것도 그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²²⁾

Southside Printing, 1897), pp.36-37; J. W. Longuen, *The Rev. J. W. Longuen, as a Slave, and as a Freeman: A Narrative of Real Life* (New York: Negro University Press, 1968; orig. pub. 1859), pp.81-82; John Hebron Moore, *Andrew Brown and Cypress Lumbering in the Old Southwest*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7).

21) John Parker, *His Promised Land: The Autobiography of John P. Parker, Former Slave and Conductor on the Underground Railroad*, ed. Stuart Seely Sprague (New York: W. W. Norton, 1996), p.30.

별목과 그 처리에 일가견을 이룩한 탁월한 기술을 가진 도끼로 무장한 “제대로 된 한 손”(full hand)은 적어도 하루에 1 에이크의 약 1/8을 처리할 수 있다. 말이 그렇지 이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만일 주인 또는 농장주가 그들의 의지에다가 결정적으로 노예들의 “제대로 된 완전한 손”을 철저하게 쥐어짜는 것을 더한다면, 약 3~4 개월이 지나면 그럭저럭 최소한의 경작지가 준비될 뿐만 아니라 면화를 비롯하여 각종 농작물의 수확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한 마디로 노예들의 노동 착취와 그 수고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것이다. 거대한 숲 지대를 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갖추는 과정에서 결국 환경사적인 재앙이 만들어지게 된다.²³⁾

다시 돌아가서 벌거숭이 토지로 바뀌게 되는 과정은 그렇게 단시일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에서와 같이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예외적이다. 농경지가 준비된 뒤에서도 여전히 나무들은 일차로 경작지화된 토지 속에서 잔존하고 있었다. 이유인즉 큰 나무들을 정비하고 벌목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는 다른 다양한 수목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목들의 “박피제거술”(girdling)로 나무를 고사시키는 방식을 취했다.²⁴⁾

인간 상품 노예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대강 개간한 땅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는 일을 하게 된다. 바로 그들의 놀라운 손의 능력으로 탄생한 인공자연이다. 그런 일을 위해서는 우선 토지에서 거두어들이는 나무들을 합판으로 만들어서 가로대가 있는 긴 울타리를 만든다. 이렇게 하여 거대한 숲의 한 부분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별판으로 정리되고 있는 이 지역은 이후 이른바 “단순부동산권”(fee-simple: 무조건 토지 상속권, 無條件土

22) *Ibid.*

23) *Ibid.*

24) *Ibid.*

地相續權)이라고 부르는 완전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으로 조성될 수 있었다. 이로써 자연은 결국 인공적인 농업경제를 위한 토지로 탈바꿈하고, 온갖 자연을 먹고 사는 동물들의 이동도 자연스럽게 막히게 되었다.²⁵⁾

그럼으로 농장을 중심으로 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자연은 소리 없이 그 흔적을 잃어 갔다. 면화 밭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은 그 소리와 경치를 잃어가고 있었다. 노예들과 주인님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모든 나무들은 희생되고 있었다. 나무들은 이곳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베어지고 그리고는 강가로 끌려 들어왔다. 그래서는 증기선을 포효하도록 하는 먹잇감으로 사용되었다. 모든 곳에서 숲은 사라지고 자연은 황폐해져갔다.²⁶⁾

무수한 수목들이 이리저리 파 뒹굴어져 버리면 식물의 생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외투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토지는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있는 토지의 부분은 사실 지구의 표면 중에서도 표면이고 그것을 다양한 자양분을 먹고 식물은 살아갈수 있다.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토양 즉 표면은 사실 이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보호해주는 완전하고 안전한 피막이다. 이제 그런 보호 장치로서 외투가 없어진 식물에게는 크나큰 피해가 될 수 있었다. 생명 보호 장치의 열개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결국 자연은 벌거숭이 모습으로 대지를 이루게 된다.²⁷⁾

25) Northup, *Twelve Years a Slave*, pp.69, 116; Ball, *Fifty Years in Chains*, p.183; Hughes, *Thirty Years a Slave*, p.59; Olmsted, *The Cotton Kingdom*, p.150; Anonymous, "Bagasse for Fuel in the Manufacture of Sugar," *DeBow's Review* 8:4 (April 1850), pp.401-402; Lewis Mumford, *Technics and Civiliz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1934), pp.107-150.

26) *Ibid.*

27) Joseph Holt Ingraham, *The South-west, by a Yankee* (New York: Harper, 1835), vol. 2, p.86; Ulrich Bonnell Phillips, *Life and Labor in the Old South*

이렇게 되자 자연 내리는 비를 제대로 보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물은 항상 그렇듯이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서는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연이었지만 이제 황무지로 바뀌게 된 자연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온갖 수목이 흡수하던 빗물들은 그대로 방치되어서 자신의 가고픈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 지역의 물의 이동 경로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간 것이다. 어떤 통제력도 잃어버린 수마와 같은 비가 인간이 새롭게 개척한 토지를 침식하고 망가트리고 있었다. 자연은 인간에 대한 복수를 단행하고 있었다.²⁸⁾

지금 인간의 왜곡으로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이 땅이란 사실 수 천 년의 생태학적 역사가 그대로 숨겨져 있던 부분으로 기억해야 한다. 바로 탄소를 가득채운 에너지원들이 풍성하게 들어 있는 곳으로 말이다. 오랜 기간 자연이 만들어 놓은 이 위대한 생태학의 보고와 초석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²⁹⁾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치수 작업의 가장 정확한 예시는 바로 미시시피 강 하류 지역에 제방을 쌓아 강의 자연적인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강의 상류에서 인위적으로 숲을 개척하고 농토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공적인 제방작업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이 저장하고 있었던 엄청난 양의 비옥한 양분을 가득 담았던 충적토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빈번한 홍수와 인위적인 제방으로 인하여 쉽고 집중적으로 이곳 인공 제방 내로 유입되

(New York: Little Brown, 1963), pp.10, 63; Ari Kelman, *A River and Its City: The Nature of Landscape in New Orlea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158.

28) *Ibid.*

29) *Ibid.*

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⁰⁾

강의 하류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것은 마치 불 보듯 아니 물 보듯 뻔한 것이다. 특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하류 뉴올리언스의 홍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강의 수계에서 일어난 인위적인 개입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공적인 제방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말 그대로 터져 버린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사실 근래 이 도시의 최악의 사태 이전인 남북전쟁 이전에서도 이미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들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작업에서 만들어진 제방이 사실은 그 의도와는 달리 어느 순간에는 그 기능을 잃게 되고 물을 빠르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두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넘쳐흘러 새롭게 개척된 농토지역을 잡아먹고 배후 습지를 만들어 내는 기대하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냈다.³¹⁾

그러한 인위적으로 개발된 미시시피 강의 수계를 따라 가다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강은 “면화 왕국”의 도래와 함께 자연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지금까지의 그 원대한 역할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이 지역은 큰 강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자연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자연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확대를 이루어가게 되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지향성이 많은 부분 강

30) *Ibid.*

31) *Ibid.*

을 중심으로, 수직적이었다면 이제 수평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²⁾

자연이 인간의 농토로 개조되면서 이 지역의 “바이오매스”(biomass), 즉 총 생물이 살아왔던 공간과 영역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 위대한 자연의 생태학적 토양은 모두 다 개간 작업에서 벌목되고 불로 태워져서 오직 농사에 필요한 별거숭이 자연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는 쟁기질이 가능하고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일 식물만으로 채워졌다. 이런 장면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경우가 한 때는 노예였던 모시스 그랜디가 그 당시를 회고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이제 새롭게 개척된 이 땅은 몇몇 다람쥐와 너구리들이 놀란 시선으로 바삐 움직이는 땅이 되었다.”라고 회고하고 있다.³³⁾

농장주들은 이 땅을 개간하면서부터 필요한 노동력을 다른 곳에서 데리고 와야 했다. 북쪽으로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남북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인력을 강제로 끌어와야 했고 좀 더 남쪽으로 가서는 테네시, 켄터키, 미주리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개간지를 만든 후 면화를 심었고, 언제나 농장주들의 필요와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농장주들은 곡식과 소금에 절인 고기를 가까운 강을 이용해서 가지고 왔다. 그것은 이 신천지를 바꾸는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이다.³⁴⁾

32) Moses Grandy, “Narrative of the Life of Moses Grandy, Late a Slav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North Carolina Slave Narratives: The Lives of Moses Roper, Lunsford Lane, Moses Grandy, and Thomas H. Jones*, ed. William L. Andrew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p.178.

33) *Ibid.*

34) Steven Stoll, *Larding the Lean Earth: Soil and Society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New York: Random House, 1984; orig.pub, 1860), p.139; Ball, *Fifty Years in Chains*, pp.17, 22; T. J. Sumner, “Analyses of the Cotton

그리고 가축을 들여왔다. 소, 말, 노새, 돼지, 개들이 농장의 소리를 더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바로 농장주인 그들이 바라는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였다. 어디를 봐도 그들만큼 부지런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기 힘들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신세계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으로 모든 나태함을 멀리 하는 그런 부지런한 일꾼 말이다. 그런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들에게 이 무한한 땅을 그리고 한 번도 인간의 손을 타지 않는 자연을 경작지로 만드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타인의 노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바로 인간 상품이라는 노예 말이다. 그리고 이들의 노동은 단지 주인의 희망에 찬 노동과는 다른 하루하루가 희망 없는 절망의 움직임이었다. 어쨌든 바로 이런 노동을 통해서 이곳은 새로운 농업 그리고 새로운 경작지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었다.³⁵⁾ 처음 자연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불을 질러서 오래된 숲을 벌목하고 또한 긴 높지대를 덮고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들을 정리하는 일차적인 경지작업에 이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했다. 주로 바둑판 스타일로 개척된 지역을 구획을 정하고서 잔가지를 정리 한 뒤, 완전한 논경지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도까지 오는데 거의 십년 이상의 길고 긴 시간과 노력이 투여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이러한 토지 아니 경작지라고 완전히 부를 수 있는 이 지역에서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인위적인 경지 작업 정리과정에서 자연 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움직임이 너무 급하게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갈수록 토양이 얽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³⁶⁾

Plant and Seed," *American Cotton Planter*(이하 ACP) 1:3 (March 1853), p.71.

35) *Ibid.*

36) *Ibid.*

그렇게 될 경우 토양이 보존해야 할 그 지력이 약해져 주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생산을 이루지 못할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다시 어느 순간에 덤불이 이리저리 눈에 띄게 자라게 되고 작은 향나무와 삼나무들과 더불어 이 지역 사람들이 “라블로리”(loblolly)라고 방언으로 부르는 작은 소나무들도 한 자리를 찾게 되자, 질퍽질퍽한 늪지들도 다시 농경지를 잡아먹게 되었다. 어느 순간에 주인들은 그들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만들어 놓은 이 토지에 대한 신경을 끊고 가까이에 있는 다른 자연을 앞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손을 댔다. 그러면 주인의 시선으로 버려진 이들 늪지, 덤불, 그리고 초지는 자연으로 복귀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지로서 그 가치가 없는 초지가 되어, 다시 토양의 지력이 강해지거나 화학비료가 나타날 때까지 황폐한 지역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³⁷⁾

그리고 다시 주인은 바로 그 인접의 토지를 앞에서와 같이 개발하게 된다. 물론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곳으로 강제로 데리고 온, 마치 기름만 있으면 언제나 작동 가능한 기계처럼 노동을 할 수 있는 바로 인간 상품의 덕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물론 이 경우의 노동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자연이 인위적인 손을 타게 됨으로써 결국 그 위대한 원시림의 자연은 인공적인 마력 앞에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바로 한 가지 식물을 생산하는 그런 자연 공장의 모습으로 말이다.

은 세상이 하나의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파 뒹굴어지고 있었다. 자연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이 된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식물을 위한 경작이 계속해서 준비 되어 가고 있었다.

37) *Ibid.*

일 년 중 면화재배시즌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오면 농부는 이렇게 개척된 들판의 상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가 맡은 농지에서 신경과 근심은 하루도 끊을 날이 없었다. 끊임없는 쟁기질도 예사 일이 아니다. 이랑을 만들고 이어서 하나의 이랑을 두 개의 고랑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두 개의 고랑을 하나의 이랑으로 만드는 경우도 다반사의 일이었고 생각 외로 고통스러운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와 이랑은 계속해서 손을 보아야 하는 일이다. 이런 일에서는 쟁기도 좋아야 하고 결정적으로 인간으로는 감내할 수 없는 노동이다. 이런 일들은 보통 삼월 초 봄날부터 시작한다. 그리고는 이런 부단한 봄날의 쟁기질은 우기가 되어야 끝낼 수 있는 것이다.”³⁸⁾

3. 급진적인 변화의 완성

이제는 다른 방향에서 이 놀라운 변화상을 살펴 볼 차례이다. 변화된 자연에서 모든 실체들의 또 다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면화 생산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공 자연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인간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개척의 역사가 아니라 반대로 이 변화를 야기한 물류와 그것으로 탄생한 인공 자연이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본다. 이 지역의 인공자연에서 농사의 시작과 끝인 일 년 간의 농사월령가에서 인간의 정신 그리고 신체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확인해보려는 것이다.

면화와 관련한 노동의 역사는 이전의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을 만들어냈다. 당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

38) Turner, *The Cotton Planter's Manual*, p.29.

의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황당하면서도 놀라운 신체의 반응과 변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 간에 항상 “해야 될”(to be done) 것 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바로 그 속에서 슬픈 인내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경우, 이곳을 탈출한 노예들의 기록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앞에서 말했듯이 언제쯤 줄 이랑과 고랑을 준비해야하고 언제쯤 모판을 설치해야 하며, 언제쯤 그곳에서 자란 모판을 직접 밭에 심어야 하는 시간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런 일 중에는 면화 수확기에 오면 그들의 신체 중에서 특별히 주인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슬픈 이야기이다. 그들의 신체의 발육과 그 능력을 특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게 됨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인간 상품을 구입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인의 고민은 높아만 간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노예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와 정신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어 가는 과정이다. 어쩌면 인격적인 모든 것을 박탈당한 상품으로 전락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신체에서 특별히 한 부분이 지닌 가치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나머지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다.³⁹⁾

농장주나 이 지역에 포박당하고 이주한 인간 상품의 일상생활에서의 고통과 시련이 그렇게 특별난 것이 아닌, 세상의 누구나 하는 일에서 느끼는 그런 것이라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런 지루하고 긴 공부에서 이해해보려는 것은 단지 그런 작업의 고단함과 스트레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아주 예외적인 자본주의적 농업 생산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왜 노예제도를 낳고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발전하여 국가의 정치경제학적인 특별한 구상으로 나아가고 이후에 세계사적 지평으로까지 연결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39) A. W. Dillard, “Thoughts on the Culture of Cotton,” *ACP* 2:5(May 1854), p.143.

되기 때문이다.⁴⁰⁾

사실 미국 남부가 이러한 단일 식물을 재배하는 거대한 벨트로 변화됨에 따라서 결국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물론 일반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인간 상품인 노예 노동에 대해서는 여러 역사가들의 관심이 있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에서 관찰되는 그 변화의 급변 그리고 놀라움에 대해서는 무시되어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자연 만들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일 생산 시스템의 완성과 함께 이곳으로 들어온 인간 상품의 신체적 적응과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경우는 없었다. 자연과 물질 그리고 식물의 역사에 영향을 준 인간의 변화 특히나 주인이 아니라 이곳에 예속된 슬픈 인간상품의 노동과 몸의 역사에서 말이다.⁴¹⁾

우선 가장 분주한 시기인 본격적인 수확 철이 다가오는 순간에 대한 기억들을 살펴보자. 그때는 대략적으로 말해서 8월 말 즈음이 된다. 그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을 피게 되고 이들 꽃들은 둥근 꼬투리로 변화하게 된다. 모든 가지에서 이들 꼬투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껍질을 벗어나

40) Turner, *The Cotton Planter's Manual*, pp.16-18, 25-26; Northup, *Twelve Years a Slave*, pp.123-124; Gray, *History of Agriculture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to 1860*, vol. 2, pp.701-702; Moore, *Agriculture in Antebellum Mississippi*, vol. 2, p.43; *The Emergence of the Cotton Kingdom*, p.38.

41) Laurence Kotlikoff, "The Structure of Slave Prices in New Orleans, 1804-1862," *Economic Inquiry* 17 (1979), pp.496-517; Michael Tadman, *Speculators and Slaves: Masters, Traders, and Slaves in the Old South*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9), pp.25-31; John Knight to William Beall, January 27, 1844, John Knight Papers, Records of Antebellum Southern Plantations on Microfilm, ed. Kenneth M. Stamp, Perkins Library, Duke University; Walter Johnson, *Soul by Soul: Life inside the Antebellum Slave Marke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138-144.

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확 철이 다가오게 된 것이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인간 상품 노예들의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바로 그 시점이기도 하다. 본격적으로 면화를 채집 또는 “따는”기간에 다다르고 있었다. “면화를 따는 일”은 유용한 자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손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준비함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한 농장주는 충고를 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주장을 더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심사를 보여주고 있다. “한 손 당 적어도 40~50 파운드를 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가 바로 이 때다.”⁴²⁾

이른바 자연의 “급격한 변화”(radical simplification)라는 것은 바로 그 땅에서 일을 하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을 해서 강제로 이 일을 하도록 된 “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중요하고도 망각된 역사를 되살려보려는 역사가들의 노정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슬픈 영혼들의 역사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곁으로 치장된 과거의 그림 속에 닫혀버린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들을 찾아보는 위대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거의 모두가 다 이른바 미국 국내노예무역로(이 말은 대서양 노예 무역루트와 구별을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다.) 또는 주간노예무역(interstate slave trade)을 통하여 이곳 미시시피계곡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들이다. 특히나 미시시피 주와 루이지애나 주가 그 현저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⁴³⁾

42) James M. Chambers, “On the Treatment and Cultivation of Cotton,” *ACP* 1:7 (July 1833), p.204; Ball, *Fifty Years in Chains*, 5; L. C. Gray, *History of Agriculture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to 1860* (Washington, DC: Carnegie Institute, 1933), vol. 2, p.702.

43) Laurence Kotlikoff, “The Structure of Slave Prices in New Orleans, 1804–1862,” *Economic Inquiry* 17 (1979), pp.496–517; Michael Tadman, *Speculators and Slaves: Masters, Traders, and Slaves in the Old South* (Madison:

그들은 이곳에 오기 전에 자신들만의 공동체와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여기 이곳 미국으로 힘든 경험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런 가족과의 생이별을 겪었다. 대서양을 건너면서 일어난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간의 생이별을 극복하고 나서 슬픔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북미 대서양 연변에 정착하고 다시 만든 가족관계는 국내노예무역이라는 생이별을 통해 이곳으로 들어왔고 미시시피계곡 그 광대한 지역에서 그들의 손으로 다시 하나의 위대한 변화, 즉 “급격한 변화”라는 일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⁴⁴⁾

그들은 여기에 오기 전 그들의 손에 익숙한 그런 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일에 적응하여야 했다. 이전에는 그들이 주로 밭매이고 있었던 상남부 지역(Upper South: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의 노예제도체제하에서는 면화와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주된 작물은 담배에서부터 쌀까지였고 그 외로 사탕수수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 지역의 새로운 주인이 선택하고 강제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손은 다시 정비되고 조정되어야 할 형편이 된 것이다.⁴⁵⁾

특별히 이 지역을 경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화된 작물에 적당한 일꾼을 노예시장을 통하여 구입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유인즉 이들 신체의 특수함과 효능에 따라서 수확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새로운 지역의 특수한 농업에 최적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인들이 기꺼이 그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9), pp.25-31; John Knight to William Beall, January 27, 1844, John Knight Papers, Records of Antebellum Southern Plantations on Microfilm, ed. Kenneth M. Stampp, Perkins Library, Duke University; Walter Johnson, *Soul by Soul: Life inside the Antebellum Slave Marke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138-144.

44) *Ibid.*

45) *Ibid.*

해서 인간 상품들은 특정 나이의 노예들이 우선시되고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로 “가장 좋은 나이”(prime age)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대체적으로 15~25살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선택물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 환금 작물로 재배될 그런 취지에서 말이다. 물론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없는 이들에게는 앞으로 그렇게 준비되도록 강제된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자기 신체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⁴⁶⁾

그러나 그 전에 이런 상품 생산에 적합한 인간상품이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의 농장주들은 대체적으로 노예들 중에서도 특히 나발과 농토에서 제대로 일을 배워왔던 그런 인간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농장에서 사용하는 노예는 담당하는 일에 따라서 농장의 주인의 지택에서 일을 돕는 노예와 논과 밭에서 일을 하는 노예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과 밭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어렵고 힘든 농장 일을 처리하는데 최적의 신체적인 조건을 함양해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이곳 미시시피 계곡의 생태학에서 나타나는 여러 지역적인 풍토병 또는 역병을 견뎌낼 수 있었던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인간 노예들 중에서도 최고의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으로 크리올(Creole)이다. 뉴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에서 그들은 다른 노예들에 비해서 거의 25%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었다. 물론 그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이유는 당연히 이 지역의 특수한 자연환경에서 일찍이 잘 적응하여 견뎌내는 능력을 바로 다른 곳에서 이미 배양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⁷⁾

46) *Ibid.*

47) Dr. John Stainback Wilson, “The Peculiarities and Diseases of Negroes,” *ACP* 4:12 (December 1856), pp.559-5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지역에서부터 받아들인 노예들의 경우에는 이 지역의 특수한 자연에서 만들어내는 풍토병을 견뎌내는데 일정 시간의 노력이 필요했다. 이곳 하남부(Lower South: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루이지애나가 여기에 속하며 주로 면화 생산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이 지역의 농장주들이 부르는 말로 일정기간의 “적응기”(seasoning)가 필요하다. 이 기간에 그들의 신체는 이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이 지역의 특수한 즉 면화 농업에 적응하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다.⁴⁸⁾

농장주로서 이런 적응기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그들이 가진 인간 상품이 과연 얼마나 이 세계에서 잘 적응하여 자신들의 원하는 최고의 노동자로서 일급의 상품으로 그리고 노예로 만들어지는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들이 이런 관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노예들의 피부변화이다. 이 지역의 자연과 일체화되어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구입한 인간 상품의 피부가 일정기간의 적응기를 거치면서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동일한 색깔을 갖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이다.⁴⁹⁾

“칠흑같이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한편으로 그 피부가 그 색깔과 함께 반들반들 빛나는” 바로 그런 상품을 구할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과 투자의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당시의 잡지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 조건의 완벽한 상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도 잡지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여러 인종의 혼합물보다는 “어떤 다른 피도 섞이지 않는”(un-adulterated) 완벽한 토종을 찾아야 하며, 다시 피부색의 강도를 이야기하면서는 무엇보다도 “번드르르 정도로 광채가 나야하고”(greasy-skinned), 이들 인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강한 냄새”(strong-

48) *Ibid.*

49) *Ibid.*

smelling)를 보여줄 때 탁월한 선택을 한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⁵⁰⁾

바로 여기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미국인들의 생각 속에서 검은 것들에 대한 인종혐오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이러한 색깔에 대한 선호의 역사가 다른 한편으로 상업적인 이익과 관습을 추구하는 그 시대의 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기기묘묘하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비극적인 인종적 아말감은 바로 이런 차원을 통해서 그들만의 인종주의가 발명될 수 있었던 것이다.⁵¹⁾

농장주 중에서도 특별히 부를 과시하는 위치에 있는 부류들은 노예들이 하는 직종에 따라서 각각의 피부색을 정의하고 구분하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구분에서 인종적인 구분 그리고 주체와 타자의 구분으로 백색인 백인성이 결정되고 반대로 흑색인 흑인성이 결정되는 그 액체 공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진진하다.⁵²⁾

일과 업무에 따라서 노예를 선택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여유를 가진 이 사회의 능력자에게 있어서 피부색을 고려하여 발과 눈과 같은 일터에서 요구되는 노예에게는 특별히 강한 흑색을 우선시 하고 백인과의 인종 관계망의 지표와 경계로서 사용될 백인성과 흑인성이 이렇게 준비되었다. 그러나 다른 조건과 노동에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그들의 흑인성과 백인성이 또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나 그들의 저택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을 여러 가지 면에서 봉사하는 목적으로 사

50) *Ibid.*

51) *Ibid.*

52) *Ibid.*, p.558; Johnson, *Soul by Soul*, pp.135-161; *River of Dark Dreams*, pp.160-161.

들일 노예들은 우선 그들 주인들의 느끼고 있는 바로 백색지향성의 색깔을 우선하여 선택하고 있었다. 그럼으로 해서 그런 공간에서 항상 주인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남성 주인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최고의 즐거움”으로 채워져야 했다.⁵³⁾

그럼으로 이 세계는 특별히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모든 것이 상업적으로나 자본주의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했다. 물론 주인님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 노동력의 세계에서도 다양한 세부 기준표가 오랜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를 생성하여 거의 하나의 규율과 관습으로 먹혀 들어가는 방식이 있었다. 우선 그 하나는 타고난 색깔을 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색깔에서도 백인들이 하는 고귀한 일과 흑인들이 하는 힘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회의 더러운 일을 담당하는 경계를 보다 확연히 주입시키고 설정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중간의 회색의 공간을 배치하여 색깔에 따른 인종적 질서를 확고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⁵⁴⁾

두 번째로 노동을 담당하는 흑인 인종의 다양한 구분을 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또한 바로 성에 의한 구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이 사회의 주인의 판타지와 묘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보통은 “한 손”으로 표현하는 또는 “큰 손”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노동력을 보조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 중에 하나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논과 밭에서 일을 하는 농사와는 달리

53) *Ibid.*

54) Ball, *Fifty Years in Chains*, p.45; Turner, *The Cotton Planter's Manual*, pp.30, 14, 26; Olmsted, *The Cotton Kingdom*, p.184; Chambers, “On the Treatment and Cultivation of Cotton,” p.203; Anonymous, “Work for the Month,” *ACP* 3:9 (September 1855), p.276.

다양한 문화적인 그리고 세련된 주인의 정원과 저택에서의 봉사과 시중에 해당하는 일들이다.⁵⁵⁾

뭔가 다른 판타지가 그들의 선택을 좌우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듯 언어적인 내용과 기표가 여러 군데에서 살아 숨 쉬면서 우리에게 진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언어에서 보이는 그 놀라운 것은 바로 “팬시”(fancy)를 비롯하여 주인님의 다양한 수사학과 언어에서 은연중에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그들 주인님들은 언제나 그들만의 섹슈얼리티를 규정하고 그 속에서 해탈의 판타지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주인은 항상 아내를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그리고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게 위해서 완전한 흑색 피부보다는 백색을 강조하였다. 백색 궁전에서 의 경계구분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었으니 그들의 상상의 욕망을 풀어줄 꿈수의 기회를 기대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⁵⁶⁾

자본과 상업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노동 계층 즉 인간 상품인 노예들의 가치와 평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세 번째의 특징은 아무래도 여타 다른 노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예의 신체적인 특징이 가치의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물론 대부분의 전근대 신분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려는 방식으로 예측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근대 사회에서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노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단지 몸의 사이즈를 가지고 평가를 단행하는 경우에는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19세기에 이른 노예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한 것도 예외적이지만 그렇다고 이 세기에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고대사회의 노예제도에서 상품수준을 정하는 것

55) *Ibid.*

56) *Ibid.*; Johnson, *Soul by Soul*, pp.135-161; *River of Dark Dreams*, pp.160-161.

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다. 어쨌든 신체적인 튼튼함과 크기가 인간 상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점도 기억할 만한 요소이다.⁵⁷⁾

III. 결론

최근 역사학은 놀라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다름 아닌 동식물에서부터 물류에 이르기까지, 현 인간중심의 역사에서 한발 벗어나 지구사의 현상들을 관찰하여 삶과 연관된 모든 것을 유기적인 관계망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속에서 주체와 타자라는 일방적인 관계망에서 벗어나 주체와 주체 타자와 타자로 연결될 수 있는 겸손의 미학을 배우고 있다. 이러한 관계망은 결국 역사학이 인간과 그것에 종속된 사물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자연 환경 그리고 외경의 역사학으로서의 가치를 더 한 층 보장하고 강화하여 인류세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보안책과 지속가능한 지구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낼 수 있다. 나아가 진부할 정도로 말해지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낙관적인 좌표를 만들 수 있다는 역사학의 목적을 이룩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학의 중심 테제의 변화를 관찰한 역사는 과거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은 오해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역사학에서부터 자연과학 그리고 인간의 본연적 사고와 가치의 지도이념을 정의하는 철학 부분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외치고 있는 조망과 전망은 과거에는 그렇게 심각하

57) *Ibid.*

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한 역사학에서 관심 자체가 바로 우리의 지금까지 지나친 삶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조금 자세하게 보면 사실 물류를 포함한 자연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사물의 질서들을 살펴보는 것은 진정한 인간의 역사에서 보는 그런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놀라운 미시와 거시의 지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마치 혁신적인 망원경과 현미경의 가진 관찰자가 되어, 그 속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심오한 힘들과 운동의 자장을 확인 하는 것과 같다. 단지 지구사시대의 미래학의 관점에서 물류와 자연이 낳은 물질에 대한 공부 이전에 과거에 대한 현명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기왕의 인간중심의 역사에 대응하여 새롭게 나타난 최근의 생태인문학 또는 물질인문학의 개념을 응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미국의 중요한 지평이자 자연의 역사를 되새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보았다. 미국의 거대한 자연사에서 보면 미국의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이 강과 자연과 그리고 그 자연과 인간의 관계망을 새롭게 고찰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말해볼 수 있었던 시론으로 이 글을 준비했다.

미시시피 강의 연안을 중심으로 하나의 단일 종 식물에 대한 인위적인 재배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공자연이라는 불려도 좋은 개조된 역사와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원시림에 다름없는 서반구의 자연이 하나의 식물, 즉 면화란 물류에 관심을 갖고 세계 경제에 함께 하게 됨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자연은 황폐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 새로운 생물을 재배하기 위해 자연만이 개조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물을 수확하고 경작하는 데는 하나의 신체적인 능력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인간상품의 이동이 요구되었다. 바로 “손”의 문화 또는 “손”의 효능성에 길들여지는 인공적인 신체의 변화다. 이것뿐이 아니

라 자연과 신체의 변화와 함께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능률과 성과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계층과 질서에 맞는 주인들의 문화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왕의 동부해안 지역에 있었던 노예제도가 대대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 미시시피 강 연안 지역의 역사이다. 그런 방향성과 흐름을 지금까지 역사학과 다른 좌표와 시선으로 보면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게 된다. 대서양 중심의 새로운 세계 경제와 산업혁명의 물줄기에 하나 되는 글로벌 역사를 바로 면화와 그 식물과 물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고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놀라운 두 가지 상품의 탄생과 이동 그리고 발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는 바로 면화와 인간상품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비극적인 물류가 일으킨 참다운 슬픔의 역사를 재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노예제도는 시간이 가면서 더더욱 이미 미국의 정치경제학의 기준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날로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문화 사회적인 구조를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미국 전체를 통해서 보면 미국 인구가 1820년에서 1850년대까지 9백6십만에서 2천3백2십만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서 노예들의 인구가 차지하는 것은 1백5십만에서 3백2십만에 이르게 된다. 이 수치를 노예제도가 삶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남부를 통해서 다시 조망하면 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다. 바로 이 지역에서 백인 인구의 거의 1/3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사실 노예와 노예제도는 그들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남부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북부에서도 남부와 연계된 바탕에서 경제가 운영되고 있었다. 남부의 이와 같은 특이한 경제와의 관계가 너무나 깊은 것이기에 단지 남부만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기

에 세계 경제는 노예제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축과 관성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사실 이와 같은 발전과 성장을 통해 오는 외관적인 수치는 인간중심의 역사적 조망을 낳았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지금의 물질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망해보자면, 우리는 이들 인간상품의 고통과 신체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여기에 대한 이들 에이전시의 저항과 그들만의 문화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자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율분과 번뇌의 인간상품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들이 저항하지 않았는지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주인이 만들어온 구조, 즉 인공자연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은 감시와 처벌의 장으로 변화되었다. 그러한 모더니즘적 자연에서 행위주체의 의지를 발산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물류의 환경인문학에서 이들의 무너진 의지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주인들이 만들어낸 근대적 자연이 이룩한 감시와 처벌의 질서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질문이 어째서 황당한지, 어째서 우문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22.07.14. 투고 / 2022.07.25. 심사완료 / 2022.08.20. 게재확정)

[Abstract]

Cotton, Nature, People, and Ecology

Yang, Hong-Seuk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answer and explain the Mississippi River era's radical nature transformation after beginning to cultivate cotton plants. Historians never have understood this radical nature changes until recently. But now historians study all the phenomenons, and finally understand the river era's nature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hybrid nature. This essay contours all these changes through recently historiography in these relating history subjects.

□ Keyword

Mississippi Valley, Cotton, Hybrid Nature, Radical Changes, Slavery

[참고문헌]

- 양홍석, 「미국 석유와 미국 역사가의 기억전쟁(I)」, 『동국사학』 70,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1.
- 양홍석, 「미국 석유와 미국 역사가의 기억전쟁(II)」, 『동국사학』 72,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1.
- 양홍석, 「자연과 환경 그리고 미국 역사가들」, 『미국사연구』 55집, 한국미국사학회, 2022.
- Anonymous, “Bagasse for Fuel in the Manufacture of Sugar,” *DeBow’s Review* 8:4, April 1850.
- Baptist, Edward E., *The Half Has Never Been Told: Slavery and the Making of American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2014.
- Bardwell, Joseph, *Cotton Culture*, New York: Orange Judd, 1868.
- Brown, H. B. *Cotton: History, Species, Morphology, Breeding, Culture, Diseases, Marketing, and Uses*, New York: McGraw-Hill, 1927.
- Burkett, Charles William and Clarence Hamilton Poe, *Cotton: Its Culture, Marketing, Manufacture, and the Problems of the Cotton World*, New York: Doubleday, 1906.
- Cowdrey, Albert E., *This Land, This South: An Environmental History*, rev. ed.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96.
- Craven, Avery, *Soil Exhaustion as a Factor in the Agricultural History of Virginia and Maryland, 1606–1860*,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26.
- Craven, Avery, *Cecil Lewis Gray, A History of Agriculture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to 1860*, Washington, DC: Carnegie, 1933.
- Gates, Paul W., *The Farmer’s Age: Agriculture, 1815–1860*,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0.

Grandy, Moses, "Narrative of the Life of Moses Grandy, Late a Slav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North Carolina Slave Narratives: The Lives of Moses Roper, Lunsford Lane, Moses Grandy, and Thomas H. Jones*, ed. William L. Andrew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Gray, L. C., *History of Agriculture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to 1860*, Washington, DC: Carnegie Institute, 1933.

Hammond, James Henry, "Report of the Committee of the Barnwell Agricultural Society, on the Culture of Cotton," in Turner, *The Cotton Planter's Manual: Being a Compilation of Facts from the Best Authorities on the Culture of Cotton*, New York: C. M. Saxton, 1857.

Hughes, Louis, *Thirty Years a Slave: From Bondage to Freedom*, Milwaukee: Southside Printing, 1897.

Ingraham, Joseph Holt, *The South—west, by a Yankee*, New York: Harper, 1835.

Johnson, Walter, *River of Dark Dreams: Slavery and Empire in the Cotton Kingdom*,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Longuen, J. W., *The Rev. J. W. Longuen, as a Slave, and as a Freeman: A Narrative of Real Life*, New York: Negro University Press, 1968; orig. pub. 1859.

Miller, Steven F., "Plantation Labor Organization and Slave Life on the Cotton Frontier: The Alabama Mississippi Black Belt, 1815–1840," in *Cultivation and Culture*, ed. Ira Berlin and Philip D. Morgan,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3.

- Kelman, Ari, *A River and Its City: The Nature of Landscape in New Orlea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Moore, John Hebron, *Andrew Brown and Cypress Lumbering in the Old Southwest*,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7.
- Moore, John Hebron, *The Emergence of the Cotton Kingdom in the Old Southwest: Mississippi, 1770–1860*,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8.
- Moore, John Hebron, *Agriculture in Ante-Bellum Mississippi*, New York: Octagon Books, 1971; orig. pub. 1958.
- Morris, Christopher, “A More Southern Environmental History,” *Journal of Southern History* 75 2009.
- Mumford, Lewis, *Technics and Civiliz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1934.
- Parker, John, *His Promised Land: The Autobiography of John P. Parker, Former Slave and Conductor on the Underground Railroad*, ed. Stuart Seely Sprague, New York: W. W. Norton, 1996.
- Phillips, M. W., “The Different Varieties of Cotton Seed,” *American Cotton Planter* 3:6, June 1855.
- Phillips, Ulrich Bonnell, *Life and Labor in the Old South*, New York: Little Brown, 1963.
- Saikkku, Mikko, *This Delta, This Land: An Environmental History of the Yazoo–Mississippi Floodplain*,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05.
- Silkenat, David, *Scars on the Land: An Environmental History of Slavery in American Sou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 Smith, C. Wayne and J. Tom Cothren, eds., *Cotton: Origin, History, Tech-*

nology, and Production, New York: J. Wiley, 1999.

SongHo ha, *The Rise and Fall of the American System*, Pickering & Chatto, 2009; 양홍석 역, 『아메리카 시스템의 흥망사, 1790-1837』, 학고방, 2009.

Stewart, Mart A., "If John Muir Had Been an Agrarian: American Environmental History West and South," *Environmental History* 11 2005.

Stewart, Mart A., *"What Nature Suffers to Groe": Life, Labor, and Landscape on the Georgia Coast, 1680-1920*,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1996.

Swanson, Drew A., *Remaking Wormsloe Plantation: An Environmental History of a Lowcountry Landscape*,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12.

Swanson, Drew A., Lynn A. Nelson, *Pharsalia: An Environmental Biography of a Southern Plantation, 1780-1880*,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12.

Turner, J. A., *The Cotton Planter's Manual: Being a Compilation of Facts from the Best Authorities on the Culture of Cotton*, New York: C. M. Saxton, 1857.